

파견기간	2024-2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2-13939
파견국가	독일		소 속	공과대학
파견대학	RWTH Aachen University		성 명	조미건
아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2 월 23 일			
지원자*	조미건 (조미건)			

(서명은 성함 타이핑으로 같음 가능하며, 수기로 수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이 되면 꼭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지냈습니다. 생계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침 적절한 시기가 되어 교환 프로그램을 신청, 최종 합격하게 되어 24-2 교환학생으로서 한 학기동안의 타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제가 파견된 대학은 독일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위치한 아헨공과대학교 (RWTH Aachen University)입니다.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많은 공대 협정교가 있어 선택지가 다양했던 건 물론, 물가가 싸기로도 유명해 생활비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독일 대학 중에서는 사람이 없고 네덜란드, 벨기에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아헨공과대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아헨은 총 인구가 30 만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대학 도시입니다. 많은 유학생이 있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없고 아시안 식당도 많이 있습니다. 한인 교회도 많아 주변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교회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벨기에와 네덜란드와 맞닿아 있는데, 특히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서는 버스로 10 분이면 네덜란드에 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대학교 테니스 수업의 경우에는 테니스장이 네덜란드에 있어 매주 화요일마다 네덜란드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저렴한 가격에 여행할 수 있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비자는 한국과 독일 양국에서 모두 취득할 수 있으나, 미리 한국에서 받아오는 편이 좋습니다. 90 일 쉹겐 조약 비자가 끝날 때까지 교환학생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불법 체류자가 되어 여행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왔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 사이트에서 테어민이라는 약속을 잡은 뒤 해당 날짜에 필요 서류를 들고 주한독일대사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테어민은 매일 그 날부터 3 개월 후의 날짜가 풀리는 식이므로 비자를 여유롭게 받고 싶으시다면 교환학생 합격을 하자마자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아헨 공과 대학은 많은 유학생으로 인해 숙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합격을 하고 정보를 등록하면 학교 측에서 기숙사 신청을 해 주지만, 모두에게 기숙사를 줄 만큼의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 처음 서류 작성 시 9 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제출하였으나, 아헨 측에서 9 월 입주자가 많으며 기숙사를 확정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날짜를 앞당기라는 메일을 보내와 8 월로 입주를 앞당겼습니다. 실제로 9 월 입주를 희망했던 제 친구들은 기숙사에 탈락했습니다. 기숙사에 꼭 들어가고

싶다면 입주 날짜를 앞당기는 편을 추천합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Student fee 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Deutschland semester ticket 이 포함되어 있기에 독일의 모든 교통을(기차의 경우는 RE, S-Bahn 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헨 공대 semester ticket 은 네덜란드 Vaals, Gulpen, Maastricht 까지의 교통 또한 지원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친구들과 네덜란드에 놀러가는 일상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기숙사는 종류마다 가격이 다른데, 제 기숙사 Kullenhof 의 경우에는 개인 방(세면대 포함)+남녀공용 화장실과 샤워실+공용 주방으로 월 253 유로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보증금은 2 달치 월세입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Hit suterlin 이라는 마켓 앞에 매주 월요일 전기구이 통닭 아저씨가 옵니다. 한국 통닭이 그리다면 시켜 먹어 보세요.

-Too good to go 라는 앱을 이용하면 가게에서 남는 재고를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유용합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RWTH Online 사이트에서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며, 마감 기한도 한달 반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있기에 굉장히 널널합니다. 다른 과목을 듣고 싶다면 간단하게 취소할 수도 있어서 또한 세 번 정도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만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아헨공대에는 영어로 진행하는 학사 과목이 많이 없습니다. 최대한 제가 들을 수 있는 난이도의 영어 강의를 선택하다 보니 전공 과목은 두 과목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VR Introduction 1: 말 그대로 VR 개론 수업입니다. 저는 들어본 적 없지만 computer vision 과 많이 겹친다고 들었고, 실제로 수강생의 60 퍼센트 정도도 computer vision 을 수강한 뒤 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출석 체크는 하지 않으며 수업도 모두 동영상으로 올려줍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시험은 지필시험으로 1 차 시험이 2 월 내에 진행되어 1 차 시험을 보고 성적을 받았습니.

Network Communication: 한국의 통신 네트워크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전공 수업으로 OSI 7 계층과 통신 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배웁니다. 출석체크를 안 하는 다른 수업과는 달리 보너스 퀴즈라는 명목으로 출석 보너스 점수를 체크합니다. 강의 동영상은 올려주지 않습니다. 시험은 지필 시험으로 1 차 시험이 3 월 중순에 있는 터라 따로 메일을 보내 한국에서 지필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German course A1.2: 독일어 어학 강좌입니다. 학점 인정 과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독일에 왔으니 독일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하였습니다. 따로 200 유로를 내야 합니다. 시험은 쉬웠습니다.

Tennis Level 1: 그룹 레슨으로 4 명이 함께 수업을 들읍니다. 저는 한국에서 3 개월 정도 개인레슨을 받으며 테니스를 배웠었는데, 한국과 독일 수업 방식이 확연히 달라 신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세를 중요시하며 잘할 때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면 독일은 한 번 가르쳐 준 뒤 계속 치게 합니다. 실력 향상 면에서는 아직 왕초보지만 적어도 재미있었습니다.

3. 외국어 습득 요령

독일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는 걸로 유명하지만 적어도 아헨은 아닙니다. 대학생들은 영어를 잘 하나 실제로 거주하는 현지인 분들은 독일어만 사용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기초적인 독일어를 쓰려고 노력하면 모두 기쁘게 받아 주시니 항상 곳곳이 도전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아헨 공과 대학교에는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암(Mogam) 건물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포화 상태일 때 목암에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포츠 강좌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야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 선이고, 한국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운동(아이스 하키)도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아헨은 아시아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대다수 식재료는 모두 아시안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룽지는 아닙니다. 누룽지를 꼭 많이 가져가세요. 끓여 먹기도 좋고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배고플 때 먹기도 좋습니다. 저는 총 3kg 을 가져왔으나 세 달 정도만에 다 먹었습니다. 요리를 많이 해 먹을 거라면 육수 코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독일은 정말 식재료가 쌉니다. 장을 아무리 봐도 40 유로를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외식비는 유럽답게 매우 비쌉니다. 아무리 싸도 10 유로 정도 하고, 맛도... 독일 요리입니다. 차라리 맛있는 식재료를 사서 해 먹는 편이 좋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멘자: 멘자가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학생 카드에 유로를 충전해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주로 3 유로에서 6 유로 사이로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으며 메뉴도 다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슈니첼의 날로 인기가 많아 사람이 붐빕니다.

의료: UNIKLINIK이라는 종합 병원이 있습니다. Kullenhof에 입주하신다면 이 병원 바로 앞에서 살게 되므로 꽤 든든합니다. 테어민은 인터넷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독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험을 들게 되고, 이 보험이 비싼만큼 많은 지원이 있기에 많이들 예방주사를 맞고 갑니다. (가다실, 독감, 등등)

은행: 저는 N26을 사용했습니다. 계좌도 쉽게 열수 있고 친구간 송금도 간편합니다. 인터넷에 치면 설명글이 많이 나오니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교통: 아헨 시내에는 지하철과 트램이 없습니다. 오로지 버스로 돌아가는 교통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버스가 많이 다녀 이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헨 공대에서 주는 semester ticket을 이용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착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NAVEO라는 버스 앱을 다운 받아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헨 시외를 왕래하는 RE와 ICE, IC 또한 지옥의 연착을 자랑합니다. 저는 기차를 탈 때 최소 30분 연착은 기본으로 잡고 계획을 짭니다. 기차로 한 시간 걸리는 공항을 가기 위해 3시간 전에 나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선로로 들어간 아이를 찾지 못하다며 1시간 반이 연착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택시를 탔던 적도, 공항 직전에 아무 이유 없이 40분이 연착되어 비행기를 놓쳤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독일 교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이 정도는 아니라 합니다. 주의하세요.

통신: ALDI TALK이라는 유심을 이용했습니다. ALDI 마트에서 유심칩을 살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개통 방법은 인터넷에 치면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비행기를 이용했고 독일과 붙어 있는 도시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아헨에서 비행기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만 소개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아헨에서 네덜란드는 서울에서 경기도보다도 가깝습니다. 한반도에서 나고 자란 저는 국경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넘나들 수 있는 건지 교환 학생을 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메스터 티켓으로 마흐스트리히트까지, 이후 기차로 암스테르담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벨기에: 아헨에서 벨기에 리에주까지 ICE로 20분 걸립니다. 여권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 딱히 할 게 없고, 제가 갔던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종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아헨에 오게 되신다면 3시간 정도 짬을 내어 성 세인트 폴 성당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테인글라스가 정말 예뻐요.

프랑스: EUROSTAR을 타고 3시간 정도, 버스로는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권 검사는 없습니다. 저는 2월 말 비수기에 가서 사람이 많이 없었고, 치안도 생각보다 꽤 좋았습니다. 다만 갖가지 이유로 돈을 달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잘 속아 넘어가는 편이지만 그냥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서 괜찮았습니다. 카드로 정상적인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카드만 가지고 가세요.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스스로 경계심이 없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헨은 정말 치안이 좋습니다. 제가 가 본 유럽 중 아헨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아헨에서 인종 차별로 의심될만한 행위는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았으며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살던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6. 기타 유용한 정보

저는 사람이 밀집된 장소를 싫어합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시골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부류라면 아헨을 정말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없어 어디를 가든 시야에 사람이 두 명 정도 있는 게 일상이고, 성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예전 관습에 따라 높은 건물도 없으며, 시내에는 유럽 동화에 들어온 것처럼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아담한 도시에서 평화롭고 한적한 일상을 보내고 싶다면 아헨을 고려해보세요.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5개월 간의 교환학생 활동은 제 짧은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삶이 존재하며 지구 어디서든 평범한 일상이 돌아간다는 감각을 깨우쳤고, 한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에서 벗어나 독일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관습과 상식을 배우며 한국인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진 독일에서 일상을 스스로 꾸려 나가며 얻는 성취감을 통해 자립심과 독립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교환 학생이라는 소중한 경험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게 될지, 혹은 그저 특별했던 추억으로 남을 지는 지금의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교환 학생으로서 지냈던 시기가 앞으로 남은 삶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